

# 통치하도록 강제 당하는 철학자는 행복할까?:

플라톤 『국가』에서 철학자에 대한 강제 문제

이종환\*

## 【요약】

동굴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좋음의 이데아를 본 사람은 높은 곳에서 지내기를 열망하면서 인간사에는 마음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다시 동료들 사이로 돌아와서 통치를 하도록 강제 당한다. 양쪽 세계에 모두 익숙한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철학자 자신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치를 하도록 강제 당하는 철학자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1)철학자는 통치하라고 강제당하지 않는대거나 2)철학자는 결국 진정한 의미로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가 주된 해석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철학자로서 살아가는 시기와 통치자-철학자로서 살아가는 시기가 서로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치를 강제당하는 철학자의 행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통치자-철학자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통치하라는 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강제를 받지만, 통치자-철학자가 그 기간에는 통치하기를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로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에는 철학적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은 궁극적인 행복을 찾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통치한다.

【주제어】 플라톤, 국가, 철인통치, 통치 강제, 철학자의 행복

---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https://doi.org/10.34162/hefins.2020..24.002>

## I. 서론

플라톤 『국가』에서 철학자는 통치하기보다는 철학적 활동인 관조를 하기 원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치하도록 강제 당한다. 철학자가 강제로 통치를 하게 되면 이상 국가의 모든 일원들을 행복하게는 해주지만 정작 그 자신은 통치보다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철학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동굴의 비유를 듣고 있던 글라우콘은, 철학자가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우리는 이들[철학자들]에 대해 올바르게 못한 짓을 하게 되며, 이들로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로 하여금 더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될”(519d)까 걱정한다.<sup>1)</sup> 철학자는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삶, 다시 말해 철학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정작 통치자가 이상 국가의 일원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상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통치를 강요받는 철학자는 이상 국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철학자의 불행한 운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사실 통치자에게 강제는 없다고 하거나, 혹은 통치행위가 철학자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선의 행위를 택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철학자는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두 해석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이 글에서는 이렇게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철학자가 정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찰하면

---

1) 이 논문에서 『국가』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는 박종현 (1997)의 번역을 사용한다.

서 사실 철학자가 통치를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이고 철학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통치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기에 통치를 하도록 강제 당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상 국가의 통치자로서 살 것임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는 강제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철학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기에 통치하는 삶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 II. 기존의 두 해석과 한계

통치하라고 강제당하는 철학자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1, 2]. 그리고 각 해석은 또 서로 약간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1-㉠, 1-㉡/2-㉠, 2-㉡].<sup>2)</sup> 첫 번째 해석은 철학자가 통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강제가 아니라고 제안한다[1]. 두 번째 해석은 철학자가 통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통치자가 원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본다[2].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그룹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 사실은 강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은 사실 철학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좋음이란 개인의 삶과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좋음, 더 나아가서 좋음의 형상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좋음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결국 좋음 그 자체를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한다. 아나스, 쿠퍼, 혹은 실드 같은 학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sup>3)</sup>

2) 기존 해석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나누는 방식은 Buckels (2013), pp. 64-67의 설명을 전반적으로 따른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필자의 해석에 의존한다.

3) Annas (1981), p. 267; Shields (2007); Cooper (1977). 쿠퍼는 도덕적 행위의

두 번째 그룹의 학자들은 철학자가 통치를 원치 않지만 사실 통치를 하는 것이 철학자 개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주장한다[1-㉔]. 그리고 이상 국가에서 철학자를 법이나 교육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철학자에게 진정한 이익이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철학자는 좋음의 형상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통치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강제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리브, 마호니, 화이트, 크라우트, 어윈, 데이비스, 크로스과 우즐리 등이 이 해석을 택한다.<sup>4)</sup>

동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철학자가 동굴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음 그 자체를 추구하려는 철학자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고, 사실 통치를 하는 것이 그에게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통치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또한 통치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철학자가 통치라는 강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철학자가 전체 세계에서 이성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통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조의 삶을 여전히 우선시하는 철학자가 굳이 어쨌든 관조보다는 못한 세계 질서의 회복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는 힘들다고 본다. 설드는 강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그룹의 전반적인 해석과 약간 결은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그는 통치하라는 강제가 교육을 통해서 내면화된, 일종의 논리적 필연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치가 직접적으로는 외부적 강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라고 보는 해석과 같은 그룹에 속할 수 있다.

- 4) White (1979), p. 291; Reeve (1988); Reeve (2007), p. 202; Mahoney (1992); Kraut (1973), p. 336; Irwin (1977), pp. 242-243; Irwin (1995), pp. 299-301; Davies (1968); Cross and Woolley (1964) 등. 기존 연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해석을 제시하는 학자인 리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가』 1권의 강제와 처벌을 비교하는 장면(347a)에 대한 설명에서 그는 이 둘을 하나로 놓으면서, 처벌은 사실 강제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결과, 즉,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통치를 당하는 것이고 강제의 부분은 빛을 갠아야하는 필연성과 관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치자들의 동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강제가 설득과 같이 가며, 욕구가 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는 강제적이며 철학자는 빛을 갠아야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빛 갠음의 구조는 여전히 필연적이고 따라서 강제라고 본다. 하지만 정의란 결과로만 좋아도 되기 때문에 철학자에 대한 강제는 허용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가』 2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도 좋은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뒤에서

그런데 이 첫 번째 해석[1-㉠, 1-㉡]은 텍스트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철학자는 동굴 안에서 통치하기보다는 동굴 밖에서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들이 허용 받고 있는 걸 이들에게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519d) 강제 당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sup>5)</sup> 그러므로 강제가 없다는 1-㉠의 주장은 텍스트의 ‘강제’를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1-㉡의 결론(사실 1-㉠그룹도 같은 결론을 내림)인 『국가』에서 철학자에 대해 강제가 있다면 결국 철학자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국가』의 여러 부분과 상충한다.<sup>6)</sup> 즉, 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두 번째 해석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2-㉠]에는 스탠리 로젠이나 애런슨 등 스트라우스의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이 속한다.<sup>7)</sup> 이들의 입장은 『국가』라는 텍스트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플라톤이 대화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지점부터 다시 돌아보게 한다. 애런슨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것은 도시 전체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국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반레이며, 철학자 1권의 트라시마코스가 제안하듯 자신 개인의 행복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sup>8)</sup>이 이런 강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해석한다. 비슷한 해석을

살펴보겠지만 강성훈 (2016)의 결론도 비슷하다.

- 5) 517b-d, 그리고 500d4, 519e4, 520a8, 520e2, 521b7, 539e3, 540b5 등에서 철학자에 대해 강제anankê를 가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한다.
- 6) 동굴의 비유를 설명하는 소크라테스가 좋음 그 자체를 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동굴로 돌아와서 통치를 해야한다고 하자 글라우콘은 “이들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며...이들로 하여금 더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한 나라의 법은 온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다(519c-520a). 따라서 철학자가 통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국 철학자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고, 1그룹의 해석은 이에 배치된다.
- 7) Rosen (2005); Aronson (1972); Bloom (1968), p. 407; Foster (1936)도 참고.
- 8) 338c의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하는 로젠의 경우도 철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집필한 목적은 철학적 탐구와 현실에서의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 다시 말해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로 돌아오는 철학자의 행복이라는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긴장과 넘을 수 없는 한계, 그리고 그런 점에서 철학과 정치(혹은 이상 국가의 통치)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국가』의 집필 목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sup>9)</sup> 그러나 『국가』를 일종의 아이러니로 읽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당화해야하는 여러 전제

---

9) Aronson (1972), pp. 393-396. 비슷한 방식으로 로젠은 모순적일지 모르지만, 철학자가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편 전체 기획의 반례라고 주장한다. 트라시마코스가 개인의 행복과 전체 공동체의 행복 중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철학자에게 적용되며, 철학자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철학자가 진짜 철학자라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을 것이고, 플라톤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국가』를 집필함으로써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철학과 정치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철학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주장한다. 플라톤 자신의 시칠리아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것이고, 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혁명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철학보다는 정치가 우선이고 철학의 정치화가 플라톤의 기획이다. 일단 이런 책을 썼다면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는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 철학자를 강제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젠은 그렇다고 해서 강제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플라톤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 플라톤이 제시하고자 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며, 통치에 대한 강제는 정치적으로 허용되지만 철학적으로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Rosen (2005), p. 280. 그러나 로젠의 입장은 『국가』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철학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그 교육의 성격을 다루면서 형상의 성격과 이에 대한 앎이 갖는 특징 등을 다루는 『국가』 5-7권의 논의가 어떻게 철학적이지만 않고 국가 통치 이념과 관련 되는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들이 있어서, 철학자에 대한 강제와 행복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2-㉠의 해석은 철학자에 대한 강제는 있고, 그 강제가 꼭 철학자에 대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로젠이나 애런슨이 속한 그룹의 학자들처럼, 강제는 있지만 그것이 철학자에게는 나쁜 것이고, 따라서 철학자는 외부로부터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강제를 받지만, 그런 강제가 철학자들을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브라운이나 버켈스 등이 있고, 강성훈도 크게는 여기 속한다. 필자 또한 전반적으로 2-㉠의 해석에 동의한다. 철학자에 대한 외적인 강제는 분명히 있고,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 '통치를 해야 하는 철학자'(이후 통치자-철학자)를 포함한 이상 국가의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나 2-㉠의 입장은 철학자가 강제를 당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필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철학자로서는 강제를 받으면서 통치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임으로, 강제를 받으면서도 통치자-철학자는 행복할 수 있고, 따라서 이상 국가를 통치하는 철학자는 전체 나라의 차원에서나, 철학자 개인의 행동과 혼의 차원에서나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도 좋은 정의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를 보이기 위해, III절에서는 우선 2-㉠그룹에 속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IV절에서 철학자가 강제를 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 III. 강제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최선이라는 해석의 한계

#### 1. 통치는 결과적으로는 좋으나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해석

먼저 이 주제에 대해 최근에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을 했던 강성훈의 입장을 검토해보자. 그는 철학자의 통치란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철학자 자신에게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철학자의 통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외적 강제-자발적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강제-자발적 행동’이다. 전자는 이상 국가의 법,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철학자가 통치해야만 한다는 강제에 의한 행동이다. 후자인 ‘내적 강제-자발적 행동’은 철학자가 통치를 하기로 하는 내적인 동기를 말하는 것인데, 철학자로서는 통치가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이상 국가에서의 정의를 이루어내고, 국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설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0)</sup> 설득을 통한 자발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강성훈은 1-㉠과도 비슷한 노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제는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강제가 사실은 철학자에게 손해는 아니라고 보기에 2-㉡과 같은 맥락에 있다.

동굴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동굴 밖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과정<sup>11)</sup>에 대해 진정한 철학자는 통치 자체는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육의 빛과 가장 좋은 공동체가 경영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정의의 요구로서의 통치’는 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성훈은 주장한다.<sup>12)</sup>

10) 강성훈 (2016), pp. 45-46.

11) 소크라테스는 동굴의 비유에서, 외부의 강제에 의해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서 좋은 음을 충분히 보고 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할 뿐, 다시 죄수들 곁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나누어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519c-d). 하지만 동굴을 벗어났던 사람들은 실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공동체로부터 얻은 양육의 빛을 갇아야만 하며, 그 방법으로 양쪽 생활에 가장 익숙한 동굴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가장 잘 경영될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주장한다.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를 가장 덜 열망하는 나라가 가장 잘, 그리고 제일 반복하는 일 없이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한다(520b-d). 그러면 공동체에 의해서 길러진 이들은 처음 실재를 충분히 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 노고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순수한 것[to katharon] 속에서 살려 하지 않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 일에 임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의의 요구로서의 통치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학자는 자신이 통치를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좋은 것이라고 설득되어, 그 설득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규제한다. 그래서 내적 강제-자발적인 행동으로서 통치를 하게 된다. 철학자 자신은 외적인 강제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적 강제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로서 통치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치보다는 철학적 행위를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상태로 철학자는 통치한다.

그러면 외적 강제는 누구에게 행해지는가? 아직 완전한 철학자가 되지 못한, 즉, 교육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외적 강제가 필요하다. 수학 등의 기초 학문 교육 후 변증술 훈련을 마친 철학자-훈련생은 15년 동안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훈련생들 모두가 철학자이자 통치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쉰 살이 된 다음에도 시험을 잘 치르고 실무나 학식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어야 좋음 그 자체를 보게 될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서야 통치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쉰 살이 되지 않은 철학자-훈련생들은 “동굴 속으로 내려가...전쟁에 관련된 일들을 지휘하며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관직들도 말도록 강제”(539e) 당해야만 한다. 이들은 이런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이 왜 자신들이나 나라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거나 혹은 실무 이외 다른 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외부 강제에 의해서 실무 교육으로서의 통치를 수행해야만 한다.

내적 강제-자발적 행동으로 철학자에 대한 강제 문제를 해결하는 강성훈의 시도는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속적 정의, 즉, 정의로운 행동의 측면과 영혼의 조화로서의 플라톤적 정의 사이의 간극을 전제한다. 그리고 통치란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아니지만 통속적인 정의로서의 행위라고 본다. 정의는 『국가』 2권 초반 소크라테스가 말하듯 그 자체로도 좋고

---

12) 강성훈 (2016), p. 30.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지만,<sup>13)</sup> 통속적인 정의는 그 자체로서는 좋지 않지만 결과로서는 좋은 것이다. 철학자는 정의의 요구 때문에 통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은 당하지만, 통치 자체가 철학자로서의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통속적인 정의이다. 하지만 통치 행위가 이상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그 일을 한다.<sup>14)</sup>

13) 『국가』 358a.

14) 브라운은 철학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바로 혼에 있어서의 조화와 행위라는 통속적인 정의 사이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rown (2004), pp. 283-290. 교육을 통해서 철학자 예비훈련생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는 동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통치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한 동기 부여는 철학자 예비 훈련생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여 자발적인 동기를 갖는 것은 나라 전체 모든 계급에 있어 동기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이상 국가 구성원 모두에 있어 행위의 정의는 구성원 각자의 혼에서 비롯하는 자발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서도 좋은 정의를 이룬다. 이렇게 교육은 통속적인 정의와 플라톤적인 정의의 간극을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브라운은 생각한다. 특히 pp. 284-288 참고.

하지만 이런 브라운에 주장에 대해서 버켈스는 문제를 제기한다[Buckels (2013), pp. 68-71]. 우선 교육은 혼의 조화라는 플라톤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는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는 교육 이외의 여러 다른 조건들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교육 이외에도 행동도 혼의 조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버켈스는 지적하지 않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향 또한 혼의 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491a-b). 아무나 교육을 받는다고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주위의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고 교육을 받아야지 혼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평범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491d).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양육되면 정 반대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교육을 받더라도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493a-494a). 따라서 브라운의 주장처럼 교육만으로는 철학자를 비롯한 이상 국가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혼의 조화로서의 정의를 이룰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은 정의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게다가 교육은 통속적인 정의, 다시 말해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충분조건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에서 제안하는 철학자 훈련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험이 있고 이를 통과해야만 한다. 스무살이 되기 전 시가와 체육 교육을 마친 다음에 수호자가 될 사람들을 선발하는 세 가지 시험(412d-414e)을 통과해야, 수학을 비롯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혼

이 해석의 문제는 통치를 하고 있는 철학자가 사실 통치하기를 기꺼워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 그 경우 혼의 조화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욕구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자신을 강제한다면 철학자 자신의 혼에 있어서 조화가 깨질 수 있다. 게다가 이성적인 부분은 욕구와 기개의 부분 모두를 인도해야만 하는데, 이성적인 부분이 내켜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혼 전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통속적 정의로 이상 국가 전체를 정의롭게 만드는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 개인에 있어서는 진정한 정의인 혼의 조화는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 통치란 여전히 그 자체로는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만 좋은 것이라면 통치자의 혼이 조화로울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건 그의 욕구들이 어떤 하나의 것으로 몹시 쏠리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쪽에 대한 욕구들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는 것을 짐작컨대 우리는 알고 있겠네. 마치 그 쪽으로 물길이 트인 흐름처럼 말일세”(485d).

철학적인 탐구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아쉬운 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 철학자는 내적 강제-자발성에 의해 통치를 하는 것이

---

을 위로 향하게 하는 교과 과정을 마치고 서른이 되면 다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고(537d), 이들에게는 5년간 변증술 교육이 실시된다. 그리고 실무를 통해 이들을 다시 시험하고(539e-540a), 선이 되었을 때에 실무와 학식에 있어서 모두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선발해서 좋은 그 자체를 보게 한다(540a-b). 교육 후의 시험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 내용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게다가 철학자 훈련생의 경우 이론적인 교육에 덧붙여서 실무 훈련까지 받는 것은,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덕스러운 행동을 할 동기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소크라테스가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자는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고, 조화로운 혼을 갖게 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철학자의 통치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브라운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만으로는 외부의 강제가 통치 행위를 그러한 두 번째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좋다는 사실을 알고 통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있기에 철학에 대한 욕구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에 설득되었어도 통치하는 행위에 대한 욕구는 약할 것이다. 철학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철학자 자신의 혼의 조화는 깨어져 버리고 결국 철학자의 혼은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그는 완전한 의미에서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내적 강제-자발적 행동으로 철학자의 통치에 대한 강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철학자에 대한 강제와 행복의 문제에 있어 충분한 답은 되지 못한다. 철학자의 통치가 통속적 정의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좋고 결과로서도 좋은 정의라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철학자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굴 속의 철학자는 불행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유일하게 진정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 2. 외부의 강제가 혼을 정의롭게 한다는 해석

지금까지 해석은 모두 혼과 행위 그리고 개인과 나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보다는 개인이 그리고 행위 보다는 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철학자의 통치라는 행위가 철학자의 행복을 꺾는다거나, 최소한 철학자가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혼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만이 행위자에게 좋은 것이고 행위자의 행복에 기여한다고 전제한다. 1의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은 철학자가 사실 통치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치가 개인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통치를 한다고 생각한다. 2의 해석은 철학자가 통치에 대한 강요를 받지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이상 국가 프로젝트 자체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보거나, 혹은 통치 행위란 철학자에게 그 자체로는 좋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완전한 행복에는 이르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기존 해석에 따르면 개인의 자발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행동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좋은 행위는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에 근거를 해야만 한다.<sup>15)</sup> 다시 말해 내부의 혼이 외부 행위보다 우선한다.

2-㉠에 속하는 버켈스는 기존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혼의 정의가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전제를 반대하고 행위에 있어서의 정의<sup>16)</sup>가 혼에 있어서의 정의psychic justice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는 훌륭한 행동과 혼의 조화 각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혼의 정의는 각 부분이 맡은 바 역할을 함으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정의로운 행위는 혼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정의의 형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정의이다. 개별자가 어떤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의 형상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각 행동들이 정의로움이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정의의 형상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버켈스는 설명한다. 따라서 혼에 있어서의 조화는 통속적 정의, 즉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혼이 정의로운 이유는 각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는 혼이 정의의 형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혼에 있어서의 정의와 행위에 있어서의 정의는 각각 정의의 형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정의가 행위의 정의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버켈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이 정의로운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 정의로운 혼을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15) 동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결국 도덕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Cooper (1977), pp. 151-153. 올바른 일을 행한다고 올바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도덕적인 동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플라톤적 정의와 통속적인 정의를 구분하는 해석도 도덕적인 동기의 우선성에 근거하고 있다.

16) 사실 버켈스는 이를 실천적 정의practical justice라고 부른다. 하지만 버켈스가 실천적 정의와 혼에 있어서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서 행위와 혼 사이의 구분과 거의 일치하므로, 여기에서는 ‘행위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하자. 이는 통속적 정의와도 외연이 일치한다.

17) Buckels (2013), pp. 71-75.

그는 『국가』 4권 444c-d의 논의를 근거로 제시한다.<sup>18)</sup>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는 것과 불의를 저지름이 그리고 또 올바른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미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는가? (……) 그것들은 건강한 것들 그리고 병든 것들과 조금도 다르게 없기 때문일세 (……) 건강한 것들은 건강을 생기게 하지만, 병든 것들은 질병을 생기게 할 것이 분명하니까 (……) 그러니까 올바른 것들을 행하는 것도 올바름을 생기게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함을 생기게 하지 않겠는가?”(444c1-d1)

버켈스는 혼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정의로운 행위의 우선성을 제안함으로써, 철학자의 통치가 비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자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행동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법은 좋음의 형상을 비롯한 여러 형상을 보고 알게 된 철학자가 만든 것이기에 정의로운 법은 정의의 형상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 정의의 법이 철학자에게 통치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철학자를 비롯한 이상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법은 이상 국가 구성원 전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때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통치를 강요하는 법에 대해 철학자에게는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두 개의 선택지만이 주어진다. 통치를 하라는 정의로운 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는 정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 혼에 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하여 혼의 조화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행해진다. 반대로 정의로운 법의 명령을 따라 살면 그의 혼이 정의롭게 된다. 법은 철학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 이상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18) 또한 9권 588b-592a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혼 안의 짐승에 달린 여러 머리를 부조화하게 키운다는 설명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더불어 버켈스가 직접 제안하지는 않지만 590c에서 수공업이나 수공업가가 혼의 가장 최선의 부분을 약하게 한다는 구절 정도가 또 다른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그 법의 명령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조화로운 혼을 소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법이 철학자의 행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철학자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철학자는 자발적으로 통치하려 들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정의로운 법의 강제 때문에 원치 않음에서도 통치 행위를 하는 철학자는 여전히 행복하다. 그런데 버켈스의 해석의 특징은 강성훈의 해석과는 달리 통치라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좋다고 본다는 점이다. 법이 철학자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의의 형상에 참여함으로써 좋음을 구현한 것이기에, 철학자에 대한 강제, 그리고 그 강제에 따르는 행위는 정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좋은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법과 이를 따르는 행위가 혼의 자발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혼은 법에 의존해서 정의롭고, 결과적으로 좋다. 이렇게 철학자에게 통치하라고 법이 강제하고 그 결과 실제로 그가 통치를 하는 것은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좋다고 버켈스는 주장한다. 이상 국가의 법이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며, 그 구성원에는 당연히 통치를 담당하는 철학자도 포함이 된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도 좋다. 그래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상 국가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철학자도 통치 행위를 함으로 행복하다.

철학자가 통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철학자에게 좋은 일이라는 점은 브라운, 강성훈 등도 모두 동의하는 지점이고,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실제로 철학자가 원치 않음에도 통치하라는 법의 강제는 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상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좋다. 버켈스의 독특한 점은, 이전 학자들의 해석과 달리 자발성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다. 혼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혼의 우선성을 전제하지만, 버켈스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혼의 자발적인 결정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치라는 특정한 행위에 있어서는 최소한 행위가 혼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기존 학자들의 전제, 즉 혼의 우선성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버켈스의 해석은 철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갖는 훌륭함에 대한 설명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소크라테스는 수호자 계급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충분히 받게 되면 두려워 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소신이 혼에 질게 물들여져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doxa orthê te kai nominos]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때 이를 용기라고 부른다. 그러자 글라우콘이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짐승이나 노예 등은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수호자들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 묻자 소크라테스는 ‘시민적 용기’(430c)라고 명명한다. 이는 500d에서 철학자들이 시민의 삶 속에 구현해야 하는 ‘시민적 훌륭함 *démotikê aretê*’ 중 하나로서, 버켈스가 제안하는 정의로운 법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파이돈』 82a-b에서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평민적이고 시민적인 훌륭함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파이돈』의 소크라테스는 철학과 지성이 없어도 습관과 단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습관과 단련이라는 행위에 따라서 혼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판단과 훌륭함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혼에 있어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버켈스의 제안은 철학자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텍스트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이 혼의 자발성이 행위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버켈스가 인용하는 444c-d 전후의 맥락 때문이다. 443b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나라를 닮도록 양육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그런 사람 안에 있는 부분들의 각각이 지배 및 피지배와 관련해서 저마다 제 할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게다가 정의란 “외적인 자기 일들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들의 수행, 즉 참된 저 자신 그리고

참된 자신의 일들과 관련된 것일세”(443c-d)라고도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버켈스가 인용하는 구절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혼의 상태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도 있다. 혹은 최소한 철학자의 경우에는 혼의 조화가 행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부의 정의로운 행위가 혼을 정의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버켈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의 정의는 통치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자신의 소유를 갖는 상태에서 비롯한다.<sup>19)</sup> 혼의 정의는 혼의 세 부분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할 때 이루어진다.<sup>20)</sup> 올바른 국가의 법이 개인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고, 정의로운 개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전체 국가가 정의로워 지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은 어느 쪽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상 국가 전체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유비 관계에 근거하여<sup>21)</sup> 개인의 몸과 혼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 시스템에서 몸에 대한 교육과 혼에 대한 교육, 그리고 몸에 대한 교육이 결국은 혼에 대한 교육<sup>22)</sup>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혼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혼이 몸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몸이 혼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순전히 체육만 해온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사나워지는 반면에, 시가만 해온 사람들은 그들대로 자신들을 위해 좋은 정도 이상으로 부드럽게 된다”(410d)고 말하면서 혼과 몸에 있어서의 균형을 잡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up>23)</sup> 혼이 행위보다 꼭 우선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버켈스의 주장처럼 외부의 법이 혼을 정의롭게 만드는 원인인 것도 아니다. 행위에

---

19) 『국가』 433e-434a.

20) 『국가』 443d.

21) 『국가』 368d-369a.

22) 『국가』 410c.

23) 411a-c에서도 음악만 해서 부드러워지거나, 체육만 해서 너무 용감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크라테스는 강조한다. 410d-e 또한 참조.

있어서의 정의와 혼에 있어서의 정의는 서로 상호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각각은 모두 그 자체로도 좋고 결과로서도 좋은 것이다. 따라서 베클스의 주장은 이전 학자들이 간과했던 정의로운 행위의 좋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강제에 따라 통치하는 철학자가 통치 행위가 좋은 것은 철학자로 키워준 양육의 빛을 갠 행위로서 좋은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sup>24)</sup>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통치에

---

24) 철학자에게 통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그가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의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520b). 농사짓는 사람이 곡물을 생산하여 겨울 내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던 기간에도 자신이 살았던 집과 입었던 옷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진 빚을 갠 것처럼, 철학자는 선 살이 될 때까지의 의식주와 여러 필요들을 채우는 다양한 재화들 뿐 아니라, 교육을 받고 실무 훈련을 받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공동체에 속해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 신세를 통치라는 방법으로 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이 나라에서 철학자들로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도록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걸 이들에게 말해주게 된다는 걸 말일세"(520a)라고 말한다. 철학자는 국가에게 양육에 대한 빚을 지고 있기에 통치를 해야만 한다. 양육의 빛이란 그가 50살이 될 때까지 먹고 자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었던 것에 대한 빛이다. 왜 이것이 빛인가? 이상 국가의 다른 생산자들과 비교해보야 한다. 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함(433e)이다. 신발장수의 경우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가? 이는 이상 국가를 만들 때의 계약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협력 관계κοινωνία(371b)의 조건이다. 신발장수가 먹고 자고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 국가가 성립할 때 맺어진 계약에 따라서 자신이 신발을 잘 만들기 때문에 신발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쌀을 줄 것이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집을 줄 것이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생산자들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비롯하여 자신의 다양한 욕구들(2권, 돼지들의 나라)을 채우기 위한 재화들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이런 재화들이 자기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기반으로 한 교환 경제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데 특히 철학자에게 적용된다. 철학자는 50살이 될 때까지 받은 것들, 의식주를 비롯하여 교육과 모든 것(특히 그 교육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강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 아니다. 철학자는 본성도 가져야 하지만 이를 잘 키워내는 교육은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도 강제가 꼭 나쁜 것은 아

참여함으로 혼에 있어서의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 IV. 통치자-철학자에게 있어서 외적 강제와 내적 자발성의 비모순

### 1. 자발성과 선택의 자유

기존 해석은 통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철학자는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며, 거기에서 법 등의 외부 강제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철학자는 원치 않는 통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행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꼭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자발성이 전제하는 것일까? 만약 선택의 자유가 없더라도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외부의 강제로 인해 통치하지 않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치를 하는 것이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철학자는 통치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철학자가 통치하라고 강제를 당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

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을 받아왔다. 교환경제라면 이를 받기 위해선 무엇인가를 바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마치 겨울옷을 만드는 옷장수가 신발장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돌려줄 것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사회의 여러 사람들, 사실상 사회 전체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철학자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회에 빚을 갚겠는가? 철학자는 통치하는 일로서 빚을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신발장수가 신발을 만드는 일을 제일 잘 하듯, 철학자가 이 사회 내에서 가장 통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국가에서의 상호 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종환 (2018) 참고.

모순되어 보이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국가』 8권에서 소크라테스는 구성원의 선택의 자유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치체제는 민주 정체인 수밖에 없다면서(557d), 이상 국가의 쇠락의 주요한 원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exousia’(557b)라고 말한다. 민주 정체는 철학자 뿐 아니라 어느 구성원에게도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는다.<sup>25)</sup> 그러나 바로 이 자유가 민주 정체를 무너뜨리고 최악의 정치체제인 참주정으로 바뀐다(562b-c).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자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이상 국가에는 ‘제멋대로 함’으로서의 자유는 철학자뿐 아니라 구성원 누구에게든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상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일을 하도록 강제 당한다. 이상 국가라고 할지라도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서 모두가 필요한 것을 물물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 국가에서 생산량을 수요에 따라 조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생산물을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생산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 자신이 맡은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면, 생산하지 못하던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졌던 신세를 자신의 생산물로 갚는 것이 이상 국가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한 가지의 일을 적기에 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일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sup>26)</sup>

25) “자네가 능히 통치를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꼭 통치해야 된다는 아무런 강요도 없네. 또한 자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그 어떤 강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네가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강요도,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자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강요도 전혀 없네…관직을 맡거나 배심원 노릇을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제약 또한 없네. 이와 같이 지낸다는 것이 당장에는 놀랍고 신나는 일이 아니겠는가?”(557e-558a)

26) 『국가』 374b-c “우리는 각자에게 한 가지 일만 허용했는데, 이 건 각자가 타고난 적성에 맞는 일이며, 이 일이야말로 일생을 통해 종사할 일로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대함으로써, 적기를 놓치지 않고 훌륭하게 해내게 되어 있는 것일세.”

하지만 신발 잘 만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발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법이 막지는 않는다. 신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을 때에 외부에서 이 일을 막지 않는 한 신발 장수는 자유롭게 자신이 제일 잘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sup>27)</sup> 물론 다른 선택의 여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 국가에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제’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만약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기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철학자 뿐 아니라 이상 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강제를 당하고 있고 따라서 이상 국가 내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상 국가의 법이 모두를 자신의 일을 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강제가 행복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더라도 행복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자유가 자발성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철학자는 통치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를 당하고 있지만,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그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 2. 정의로운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통치자-철학자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강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성은 여전히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 정의는 불가피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는 글라우콘의 주장(358c)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반대하며, 최선의 사람들은 최선의 것을 행하고 이성에 따라서 살 것이고(618c, 619b), 올바르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말한다(613a). 따라서 정의롭게 산 사람들이 누리게 될 행복은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산다면 행복하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만 행복한

27)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분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벌린, 박동천 역 (2006), pp. 343-344 참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가니 메뉴에 짜장면과 짬뽕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재료가 다 떨어져서 짬뽕은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나는 처음부터 짬뽕은 관심이 없었고 항상 짜장면을 먹고 싶었다. 그리고 중국집에 가니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고,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행복을 저해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일인 통치 말고는 선택이 없는 강제 상황이지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요소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철학자는 결국 행복하다.

이상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진 신세를 제대로 갚으려면 신세 갚기를 자발적으로 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자신에게 집과 옷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곡물로 빚을 갚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의 측면에서 정의롭다. 그런데 그가 빚 갚기를 아까워서 자신이 받은 바에 적합한 분량의 곡물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의 혼은 자신이 생산한 곡물 뿐 아니라 옷과 집을 더 갖고 싶은 욕구에 이끌린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혼은 욕망이 주도하여 조화가 깨어진 상태이다. 행위는 정의롭더라도 혼이 정의롭지 못하므로 혼과 행위가 상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철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철학자가 통치하는 행위를 함으로 행위에 있어서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혼은 조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이상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철학자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국가 공동체에 대해 양육의 빚을 진적이 없어서 양육의 빚을 갚으려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520b). 하지만 이상 국가의 철학자는 양육의 빚을 졌기 때문에 양육의 빚을 갚으려 원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혼을 위해서도, 그리고 행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 정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실제로 철학자에게는 통치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만약 그가 정말 양육의 빛을 잘 갖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철학자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통치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주어지는 것이고, 철학자는 그 선택지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통치행위가 그에게 가장 좋고, 이득이며, 올바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해석, 특히 2-㉔의 해석과는 달리, 철학자는 통치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좋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통치를 한다. 철학자는 국가 전체 뿐 아니라 철학자 개인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되기에, 자신이 통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기의 통치 행위는 관조라는 철학적 활동 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이해하고서 통치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행위와 혼 모두가 정의로워야 통치자-철학자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철학자는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412d-e). 그리고 통치하는 인생의 시기 뿐 아니라 온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나라를 위한 최선의 것들을 해야만 한다는 소신을 잊거나 내팽개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412e). 따라서 철학자들은 자발적으로 통치를 할 것이다.

### 3. 아직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통치자-철학자의 행복

철학자는 자신이 통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520e에서

---

28)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연히 어떤 필연성이, 이들이 원하건 또는 원하지 않건 간에, 나라를 관리하게 되고 나라 또한 이에 따르게 되게끔 하기 전에는…나라도 정제도 또한 개인조차도 마찬가지로 결코 완전해지지 못한다고 했던 것”(499b-c). 여기에서 필연성이 있지만 원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외적 강제가 원하는 것과 꼭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굴로 돌아가야만 하는 철학자의 운명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글라우콘은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불가피한 것에 임하듯 저마다 임한다”고 말한다. 사실 철학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삶, 즉 동굴 밖의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내켜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것 같다. 통치를 기꺼워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의 통치는 결국 기존의 해석 중 2-㉠그룹의 학자들 생각처럼 결과로서는 좋지만 그 자체로서는 좋을 수 없고 그렇기에 철학자는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철학자는 두 가지 종류의 삶, 즉 동굴과 동굴 밖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다. 생산자나 보조자 계급은 동굴 밖을 못 벗어나지만, 철학자는 동굴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삶을 동시에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철학자는 인생의 특정 기간은 동굴 속에서 살고 또 다른 기간에는 동굴 밖에서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철학자의 삶과 통치자-철학자의 삶은 시기적으로 구분된다.<sup>29)</sup> 동굴 안에서 통치하도록 강제를 당하면서 사는 철학자는 나중에 자신이 축복받은 자의 섬에 가게 되면 철학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통치를 해야만 하고(정해진 기간만), 그것이 내적으로도 동의되고(인간으로서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며, 외적인 법으로도 통치하도록 철학자는 강제 받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

29) 철학자의 인생의 각 시기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청년들 및 아이들일 때, 청소년기의 교육과 철학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한창 자라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의 육신들을 또한 아주 잘 보살피야 할 것이니, 이로써 철학을 위한 봉사자를 확보하게 되네. 그러나 혼이 원숙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혼의 단련을 증진해야만 되네. 그러다가 기운이 빠지게 되어, 정치와 군복무에서 물러서게 되면, 그때 방목 상태로 지내면서, 여사로서가 아닌 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걸세. 장차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렇게 산 삶에 어울리는 저승에서의 운명을 그것에 없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 일세.”(498b-c)

“철학자는 신적이며 절도 있는 것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절도 있고 신과도 같은 사람이 되네 (……) 그러니 만약 어떤 필연성이 철학자로 하여금 그가 거기에서 보는 것을, 비단 자신을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인간들의 성격들 속에 구현토록 단련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그가 절제와 올바름 그리고 일체 평민적 훌륭함의 졸렬한 구현자로 될 것이라 자네는 생각하는가?”(500c-d)

철학자는 신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통치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다.<sup>30)</sup>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 살고 있고, 인간으로서 혼의 조화와 혼과 몸의 조화를 다 이루는 것이 정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파이돈』편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인간의 몸을 벗고 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훌륭한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통치를 통한 명예 등을 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통치자-철학자로 사는 한 통치가 최선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원한다.

철학자가 국가의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훈련받으며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는 몸을 돌보아야 하고, 혼이 성장해가는 시기가 되면 혼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와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 기간에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일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되면 국가와 관련한 일들을 하지 않고 강제로부터 벗어나 동굴 밖에서 철학적인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다. 인생의 각 시기를 살아가며 그 때에 마땅한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철학자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가 “이들[철학자]이 이 일[통치]을 하는 것은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어서 일세”(540b)라고 말할 때, 동굴에서 벗어난 철학자의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통치자-철학자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일로서의 통치가 인생의 제한적인 그 시기에서는 최선이며, 통치자-철학자도 이 사실을 알고 적극적이

30) “모든 시간과 일체의 존재에 대한 관상을 갖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삶이 무슨 대단한 것인듯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486a)

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동굴 밖의 철학자와 동굴 안의 통치자-철학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고 각각의 시기에 원하는 바가 다르다. 지금까지 해석은 철학자 인생의 서로 다른 시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동굴 밖의 철학자 인생만 상정하며 동굴 안에서 통치를 해야 하는 철학자는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학자 인생의 시기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과 원하는 바를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통치자-철학자는 통치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혼의 각 부분이 각각의 역할을 적기에 하고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것을 욕구할 때 통치자-철학자의 혼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통치자-철학자는 여전히 철학자의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 이후에 얻게 될 그 삶을 보장해줌으로 지금 통치자-철학자가 통치하기를 원하게 해준다.<sup>31)</sup> 통치자-철학자는 기꺼이 통치하기 원하고 그것이 지금 자신을 정의롭게 만들고, 결국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통치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삶이 나중에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철학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각각의 시기들이 있고, 그 시기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몸의 훈련을 받을 시기와 혼의 훈련을 받을 시기, 통치를 해야 하는 시기와 은퇴 후 관상의 삶을 누리는 시기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활동은 선택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철학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허탄한 일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동굴 밖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단지 훈련의 기간과 통치의 기간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몸을 돌보기 위해서 체육 훈련을 하는

31) “이 사람들은 통치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삶을 장차 통치하게 될 사람들에게 자네가 찾아준다면, 훌륭하게 경영되는 자네 나라가 실현 가능하이. 이 나라에 있어서만이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 결코 황금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따맏히 풍부히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것, 즉 훌륭하고 슬기로운 삶으로 풍부한 자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520e-521a)

동안, 천문학을 배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문학을 배우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체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체육 훈련을 열심히 받기를 원하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행복한 일이다. 훈련을 받으면서 실무 능력을 키우는 동안에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실무 능력을 열심히 키우는 준비를 시스템이 강제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원하면서 열심히 하는 철학자-훈련생은 행복하다. 이처럼 철학자는 인생의 각 시기에 마땅히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어지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각 시기에 욕구해야만 마땅한 것을 원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허탄하게 바라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다. 통치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선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선의 것은 주어져있다. 따라서 철학자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생의 각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졌는지(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 강제되었는지) 알고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결국 동굴 밖의 철학자이든, 통치자-철학자이든,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철학자-훈련생이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을 갖는 것이 정의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다.<sup>32)</sup>

통치자-철학자는 최종적으로는 동굴 밖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오면 철학하며 지내는 것이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중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사실 또한 안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의

32)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추론(21d)해본 결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23a-b)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린 것은 바로 이 지혜 때문이었다. 『국가』의 철학자 또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앎은 자기의 인생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삶이 자신에게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강제되는 것이고, 이후에 동굴 밖의 삶이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가 자신의 인생에 최종적인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통치자-철학자는 자신 인생의 최종적인 활동이 통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 동시에 이상 국가라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통치자-철학자로서는 그때 궁극적인 동굴 밖의 삶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되어 알고 있다.<sup>33)</sup>

바로 이 긴장이 소크라테스가 “통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치에 임하도록 해야만 하네”(521b)라고 말한 이유이다. 『파이돈』편에서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말하듯 철학자는 계속해서 몸을 떠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sup>34)</sup> 철학자로서는 통치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치자-철학자로서는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원하기도 한다. 통치자-철학자로서는 동굴 밖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강제되는 것을 기꺼이 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통치자-철학자가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과 통치를 하기 원치 않는 태도 사이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 국가는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게 된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통치자 자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통치한다. 그리고 그 경우 통치자의 자리를 놓고 경쟁자들이 싸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

33)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말고 다른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와 같다. 이상 국가의 개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은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니다. 도공이 많은 부를 갖게 되면, 부와 빈곤의 문제가 가져오기 마련인 ‘사치와 게으름 및 변혁, 그리고 노예 근성과 기량의 떨어뜨림’(422a)이 생겨난다. 따라서 각 사람이 욕망하는 것과 모두를 갖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자신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준다. 통치자-철학자 또한 동굴 밖의 삶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통치를 하지 않고 동굴 밖에 나가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는 양육의 빛을 다 갚을 때까지는 동굴 안에 머물면서 빛을 다 갚기를 원한다.

34) 『파이돈』 64a.

통치자-철학자는 몸을 벗어나고자 원하기도 하지만,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상 국가에서(다시 말해, 동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치를 원하기도 한다. 통치자-철학자가 양육의 빛을 충분히 갚을 정도로 통치하지 않은 채 몸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그의 혼은 조화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혼은 정의롭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 통치자-철학자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자신의 양육의 빛을 갚아야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원하기도 한다. 다른 선택지, 즉 몸을 벗어나는 것은 양육의 빛을 다 갚았을 때에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철학자-훈련생들이 통치를 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에 이주한 것으로 믿고서, 공사 간에 자진해서 행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519c)이다. 아직은 동굴 안에 있어야만 마땅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이 동굴 밖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을 가지지 못한 경우 예비 통치자-철학자는 동굴 밖에서만 살아가는 삶, 즉 지금 상태로서는 헛된 것을(사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바란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동굴 속에 내려가도록 법은 강요를 해야만 하고 이들이 마땅히 원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을 통치자-철학자가 가지게 된다면, 동굴 안에 있는 한 자신이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마땅한 것을 원하게 된다.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철학자는 통치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기를 원치 않고 동굴 밖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던 예비 통치자-철학자는 양육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가상 연설(520a-c)을 듣고 나면 태도가 바뀐다. 이들은 동굴 밖에 있으려 하지 않고 통치하는 것에 임한다(520e). 통치는 불가피한 강제이지만, 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노고를 함께 하려고 하게 된다.

통치자-철학자로서는 통치하는 것이 행복하다. 자발적으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47c). 통치하지 않으면서 도시에 남아 있으면 열등한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므로 불행하고, 만약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 관조의 삶을 선택한다면 빛을 갖지 않아 올바르지 않으므로(남아 있으면서 통치를 하지 않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통치자-철학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통치를 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원한다. 통치자-철학자에게 있어 통치하라는 강제는 철학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통치는 ‘장차 축복받는 이로 되고자 하는 이가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도’ 좋아할만한 일이다(358a).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한 통치가 불가피한 것은 여전하다. 동굴 안에서의 통치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닌 이유는 동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으로 열등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통치자-철학자로서는 통치를 하는 차례가 왔을 때 수고하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양육의 빛을 다 갚은 후에야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떠날 수 있게 된다(540b). 그리고 동료들은 이들을 수호신 혹은 복되고 신과 같은 분들로서 모시게 된다(540c). 동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통치자-철학자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동굴 밖에서 철학자로서 사는 것은 신적인 삶이다. 철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처럼 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교육을 받은 후 인간으로 살 때는 통치를 해야 한다. 빛을 갚아야만 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양육의 빛을 갚을 정도의 통치만 하고 나면 자유롭게 은퇴할 수 있고 그때야 철학자로서 더 나은 철학적 행위로서의 관조를 할 수 있다. 이미 받은 만큼 갚았기 때문에 이 빛을 갚는 행위에서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더 낮고 고귀한 철학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철학자에게는 행복한 일이다.

## V. 결론

철학자는 통치자-철학자로서 동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통치하라는 법의 강제를 받으면서도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통치가 양육의 빛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루면서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통치자-철학자로서 살아가는 한 조화로운 혼을 가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를 비롯한 국가 구성원 전체가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적기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적기에 그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다(370c). 철학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철학자가 통치자-철학자로서 살 때와 동굴 밖의 철학자로서 사는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기에 그 일을 원하면서 할 때에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적기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자신에 대한 바른 앎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법에 의해 통치하라고 강제를 받지만 자발적으로 원하면서 통치할 때, 통치자-철학자는 동굴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통치하는 행위와 철학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의 긴장은 통치자-철학자가 인간으로서 사는 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통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거기서 얻는 명예를 최종적인 것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바르게 인식할 때, 통치자-철학자는 통치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통치자-철학자는 알고 있다.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고(64c), 따라서 철학자의 관심은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혼을 돌보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몸과의 함께 지냄으로부터 최대한 분리되는 것(64d-65a)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통치자-철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통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며 언젠가 그만 두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이상 국가의 일원이며

거기에서 진 신세를 갚아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성적인 것이나 몸을 돌보기를 원하는 것처럼<sup>35)</sup>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전체 뿐 아니라 자신의 혼을 돌보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통치가 통치자-철학자를 포함한 이상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그 자체로도 가장 좋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고 원하며 수행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이상 국가의 통치자로서 가장 적합하다. 결국 철학자는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통치하기를 궁극적으로는 원치 않는 사람이, 통치해야만 하는 시기에는 자발적으로 통치에 임하면 국가 전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철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다.

---

35) 『파이돈』 64d

## 참고문헌

- 강성훈 (2016),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와 강제』, 『철학』 128: 27-54.
- 이종환 (2018), 『폴리스 안에서의 상호 채무 관계에 기반을 둔 정의 - 플라톤 『국가』 1, 2권의 논의를 근거로』, 『도시인문학연구』 10(2): 7-36.
- 플라톤, 박종현 역 (1997), 『국가, 정치』, 서울: 서광사.
- 이사야 벌린 (1968), 박동천 역 (2006),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서울: 아카넷.
- Annas, J. (1981), *An Introduction to Plato's Republ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ronson, Simon H. (1972), "The Happy Philosopher-A Counterexample to Plato's Proof",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10: 383-398.
- Bloom, Allan (1968), *The Republic of Plato, Translated with Notes and an Interpretive Essay*, New York: Basic Books.
- Brown, Eric (2000), "Justice and Compulsion for Plato's Philosopher-Rulers", *Ancient Philosophy* 20: 1-17.
- \_\_\_\_\_ (2004), "Minding the Gap in Plato's Republic", *Philosophical Studies* 117: 275-302.
- Buckels, Christopher (2013), "Compulsion to Rule in Plato's Republic", *Apeiron* 46(1): 63-84.
- Cooper, John M. (1977), "The Psychology of Justice in Plato",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4: 151-157.
- Cross, R. C. and A. D. Woozley (1964), *Plato's Republic: A Philosophical Commentary*, New York: St. Martin's Press.
- Davies, J. (1968), "A Note on the Philosopher's Descent into the Cave", *Philologus* 112: 121-126.
- Foster, M. B. (1936) "Some Implications of a Passage in Plato's Republic", *Philosophy* 11: 301-308.
- Irwin, Terence (1977), *Plato's Mor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Plato's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aut, Richard (1973), "Egoism, Love, and Political Office in Plato", *Philosophical Review*:

82: 330-344.

Mahoney, T. A. (1992), "Do Plato's Philosopher-Rulers Sacrifice Self-Interest to Justice?", *Phronesis*, 37: 265-282.

McPherran, Mark L. (2007), "Commentary on Reeve",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22: 210-218.

Plato, Sling, S. R, (ed.) (2003), *Platonis Rempublic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eve, C. D. C. (1988), *Philosopher-Ki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7), "Goat-Stags, Philosopher-Kings, and Eudaimonism", *Proceedings of the Boston Area Colloquium in Ancient Philosophy*, 22: 185-209.

Rosen, Stanley (2005), *Plato's Republic: A Stud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Shields, Christopher (2007), "Forcing Goodness in Plato's Republic",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4(2): 21-39.

Wagner, Ellen (2005), "Compulsion Again in the Republic", *Apeiron* 38(3): 87-101

White, Nicholas P. (1979), *A Companion to Plato's Republic*, Indianapolis: Hackett.

Abstract

Are the Philosophers, who are compelled to rule, Happy? :  
Compulsion in Plato's *Republic*

Lee, Jong-Hwan

According to the Socrates in the *Republic*, the philosophers, who have seen the form of the Good in the intelligible realm, would be eager to spend their time above and unwilling to occupy themselves with human affairs. They are, however, not allowed to remain there, but are compelled to return to the prisoners in the cave and share their labors and honors by ruling the city. It is because the people in the cave will be benefited and eventually become happy, only when the philosophers care for the others. Nevertheless, are the philosophers, who are not allowed to do what they want to, happy? Two lines of interpretation have been presented: 1) the philosophers are, in fact, not compelled to rule, or 2) the philosophers, who are forced to rule, would not be happy, eventually. I argue in this paper that there are two separate periods in the philosophers's lives: on the one hand, living as philosophers, who are allowed to stay out of the cave, and on the other hand, living as the ruler-philosophers, who should remain in the city. While living as the ruler-philosophers, they are not only forced to rule but also do want to rule the city for the sake of all. As long as the ruler-philosopher want to rule while remaining in the city, they are happy to do their own work.

【Keywords】 Plato, Republic, Philosopher-king, Compulsion to Rule,  
Philosopher's Happiness

논문 투고일: 2020. 03. 15

심사 완료일: 2020. 04. 06

게재 확정일: 2020. 04. 06

